



광주시민의 인락한 쉼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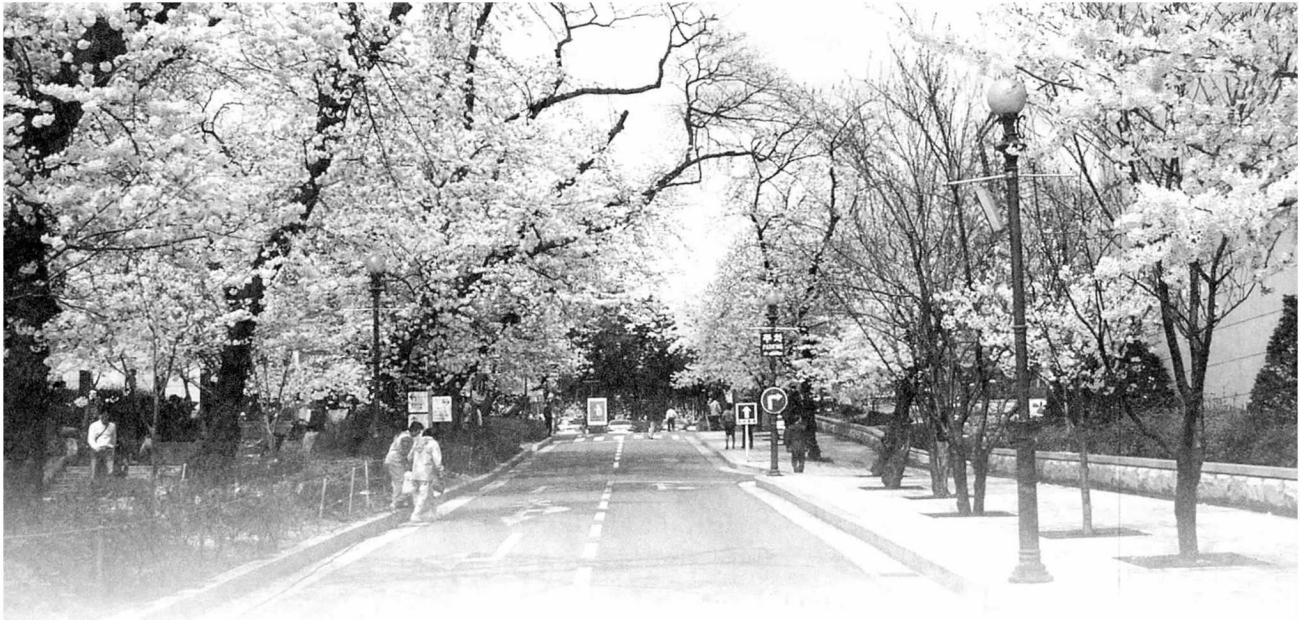
이미숙 · 협회 경영기획부 사원

입구 도로 양 편에 늘어서서 아름답게 벚꽃나무들이 운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사무소』는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이곳을 방문한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82년 2월 1일 설립된 기관이다. 연금징수 및 급여 등의 연금업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핵심적인 업무이며, 이 밖에도 기금재원을 수익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금융상품 등에 지속적으로 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



고 있으며,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82년부터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천안상록리조트, 부안상록해수욕장, 상록테니스장, 수안보상록호텔 등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광주사무소

광주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사무소는 연면적 33,309㎡에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로 체련동과 판매동으로 나뉘어 있다. 판매동의 지하 1층에는 공무원연금매장이, 3·4층에는 현대적인 감각의 예식장이 위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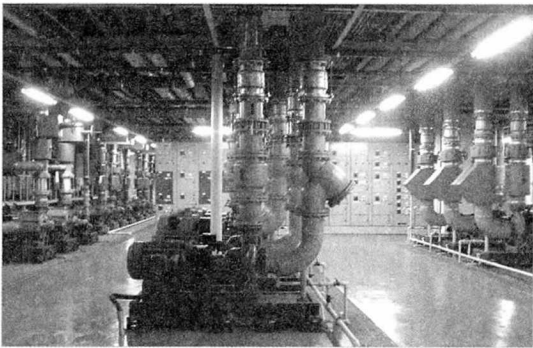
있다. 체련동에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과 올해 새롭게 단장한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등의 시설이 있다.

광주사무소의 자랑거리는 바로 벚꽃나무가 많은 경치이다. '지방의 작은 청와대'라 불리는 옛 도지사 공간 옆에 자리잡은 광주사무소는 15,000여평의 대지면적에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져 있다. 70~80년생의 벚나무들이 봄이면 벚꽃을 아름답게 수놓아 하루 3,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광주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명소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봄철에는 '특별근무기간'으로 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내내 감시 및 안전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들 시설관리자들의 노력 덕택에 시민들은 자유로움 속에 질서가 유지되어 큰 사고 없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방재시설 관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사무소의 방재실은 R형 수신반이 설치되어 전 건물을 한 눈에 감시할



군대식 관리기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계실 내부



주택관리과 김영성 대리

수 있으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NAFS-Ⅲ,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 각종 방재시설이 소방법에서 규정한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화재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섭 방화관리자는 “우리 광주사무소는 모든 방재시설들을 일명 ‘군대식 관리기법’으로 꼼꼼하고 확실하게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수명이 연장되어 타 건물에 비해 교체시기가 멀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또한 일반건물의 경우 부적절한 유지관리로 오보가 많아 꺼놓는 경우가 많은 화재감지기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어 방화관리자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광주사무소장이 화재예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내방객 및 고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전을 다하고 있다. 건물 상주인원들과 함께 매년 1회 이상 인근 소방서와 합동으로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화관리자의 자체 소방교육을 통해 유사시 재빨리 대응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재예방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

‘아주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광주사무소 주택관리과 김영성 대리는 “15년 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문어발식 콘센트, 비상통로 적치물 등으로 인해 매번 입주자와 입씨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자 및 전 직원들이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협회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위험관리 및 정밀점검을 받고 있는 광주사무소의 김영성 대리는 “협회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개선점 등 많은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등 고급인력들이 전국에 있는 건물점검 시에도 지원하여 더욱 수준 높은 점검을 받을 수 있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성 대리는 협회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자료집의 부족함에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것을 당부하였다.

‘화재는 인재’라는 말이 있듯이 대형사고는 인간의 실수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반대로 인간의 작은 관심으로 참혹한 사고를 막을 수도 있다. 방화관리자들의 완벽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성실함과 책임감 덕분에 전 직원 및 입주사, 광주시민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사무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움을 주신 분 : 주택관리과 김영성 대리, 김종섭 방화관리자